

보도시점

2024. 1. 11.(목) 10:30

배포

2024. 1. 11.(목) 10:30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8조원으로 역대 최대 지원

- 청년농, 고령농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정가치 실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로 역대 최대규모인 1.8조 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세대 유입 확대·육성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455억 원(23.6%) 증가한 1조 8,091억 원으로, 사업별 편성된 예산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1조 2,40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 △과원규모화사업(270억원) △농지이양은퇴직불(264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60억원)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31억 원(44.6%) 늘어,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스마트팜 영농 등 청년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추진된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원→171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원→60억원)***은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편성으로 청년농 지원을 확대한다.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구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활용도가 낮은 농지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

아울러, 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264억원) 신규 도입으로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지원을 강화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고령농업인의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10년) 하는 제도

이병호 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문의하거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	책임자	부 장	이수진 (061-338-5861)
		담당자	대 리	이석원 (061-338-5866)

사업명 (단위 : 억원)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B-A)	
					%
합계		14,635	18,091	3,455	23.6
맞 춤 형 농 지 지 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7,650	10,700	3,050	39.9
	농지매매	577	741	164	28.4
	임대임차	213	495	282	132.4
	교환분합	1.6	1.6	0	0.0
	선임대후매도	82	171	89	108.5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업스타트업단지)	54	300	246	455.6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45	60	15	33.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2,907	2,337	△570	△19.6
농지연금		2,282	2,423	141	6.2%
과원규모화		301	270	△31	△10.3
농지이양 은퇴직불		184	264	80	43.5
기타(제세금, 전자계약 도입 등)		339	328	△11	△3.2